

〈강호구가〉의 다섯 텍스트 연구

-텍스트별 결속, 종결, 구조, 주제 등으로 본 탈착형의 가능성-

양희철*

<차례>

1. 서론
2. 3수의 세 텍스트
3. 전후6수의 텍스트
4. 9수의 텍스트
5. 결론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강호구가>의 다섯 텍스트에서 결속, 종결, 구조, 주제 등을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탈착형 연시조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주제는 ‘안분지족의 강호한적’으로 압축할 수 있어, 텍스트별 제시는 생략하였다.)

전3수(제1~3수)의 텍스트에서, 결속은 반복표현에 의해서, 종결은 텍스트의 후미(제2, 3수)에서의 반복표현에 의해서 각각 이루어지며, 논리적 구조는 서사와 본사의 파격 구조이다. 중3수(제4~6수)의 텍스트에서, 결속과 종결은 시종의 대칭표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시간적 구조, 공간적 구조, 논리적 구조 등은 대칭적 구조이다. 후3수(제7~9수)의 텍스트에서, 결속은 반복표현에 의해서, 종결은 후미인 제8, 9수에서 반복표현에 의해서 각각 이루어지며, 논리적 구조는 본사와 결사의 파격 구조이다.

전후6수의 텍스트에서, 결속은 반복표현과 대칭표현에 의해서, 종결은 시종의 대칭표현과, 후미인 제8, 9수에서의 반복표현에 의해서 각각 이루어진다. 시간적

* 청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구조와 공간적 구조는 대칭적 구조이고, 논리적 구조는 기승전결의 구조이다. 9수의 텍스트에서, 결속은 분외사(제2수)와 분내사(제8수)의 대조적 대칭표현에 의해서, 결속과 종결은 대칭표현들에 의해서, 종결은 후미(제8, 9수)에서의 반복표현에 의해서 각각 이루어진다. 시간적 구조와 공간적 구조는 대칭적 구조이고, 논리적 구조는 서본결의 구조이며, 본사는 대칭적 구조이다.

이상과 같이, 다섯 텍스트들은 각각 독립된 작품들이나 독립된 텍스트들의 조건인, 독자적인 결속, 종결, 구조, 주제 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실은 이 작품이 전3수의 텍스트, 중3수의 텍스트, 후3수의 텍스트, 전후6수의 텍스트 등의 네 텍스트로 떼어서 수용할 수도 있고, 9수의 텍스트로 붙여서 수용할 수도 있게, 탈착형(脫着形)의 연시조로 지어졌음을 알 수 있게 한다.

□ 결속, 구조, 대칭표현, 대칭적 구조, 종결, 주제, 탈착형.

1. 서론

이 글은 나위소(羅緯素 1582~1666)가 지은 <강호구가>에서 보이는 다섯 텍스트의 결속, 종결, 구조, 주제 등을 검토 정리하고, 이를 통하여 탈착형(脫着形) 연시조의 가능성을 가늠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강호구가>는 박준규, 유수양, 양희철 등에 의해 주로 연구되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강호구가>를 1976년에 처음으로 소개한 박준규는, 누정제영(樓亭題詠)과 국문학을 언급한 다음에, 송암의 가계, 생애, 수운정(岫雲亭)의 건립과 누정제영, 송암의 수운정 생활과 <강호구가> 등을 폭넓게 연구하였다.¹⁾ <강호구가>의 부분에서는 연시조 9수를 소개하고, 9수의 내용을 정

1) 박준규, 『송암의 수운정제영과 「강호구가」』, 『어문논총』 10·11,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회, 1989, 177~204쪽.

리한 다음에, 이 작품을 일종의 어부가, 즉 윤선도의 <어부사시>와 같은 계열의 강호가로 정리를 하면서, 윤선도와 가까웠음도 부기하였다. 그리고 제1수의 종장(“倏然히 七十이 러무니 흘 일 업서 흐노라”)과 제9수 초장(“食祿을 굶친 後로 漁釣을生涯흐니”)에 근거해, 이 작품의 창작시기를 70세 이후로 보았다.

유수양은 송암의 생애와 수운정 경영, 수운정의 누정한시, 수운정의 누정시조 등을 다루면서, <강호구가>를 정리하였다.²⁾ <강호구가>의 부분에서는 9수의 내용을 간단하게 검토하고, 이어서 <어부사시>와의 상관성을 검토하였다. 이 글에서도, 박준규와 같은 근거에 의거하여, 70세 이후에 지은 작품으로 보면서, 작품의 성격을 “강호에서 누리는 안분지족의 생활을 표현한 누정시조”로 보았다. 또한 유수양은 다른 글에서 송암 문학의 형성 배경, 송암의 시조 문학, 송암의 한시 문학, 송암 문학의 특성 등을 다루면서, <강호구가> 이해의 시각, 사시가의 전통과 <강호구가>, 어부가의 전통과 <강호구가> 등을 다루었다.³⁾ 특히 구성내용과 주제를 정리한 다음에, <강호구가>는 사시가와 어부가의 성격을 모두 지닌 것으로 정리를 하였다.

양희철은 세 편의 글에서 일탈표현, 대칭표현, 후미 반복형의 종결, 구조, 주제 등을 논의하였다.⁴⁾ 이 논의들은 이 글에서 검토하려는 다섯 텍

박준규, 『송암의 수운정경영과 「강호구가」』, 국어국문학회 편, 『고시조연구』, 태학사, 1997, 209~248쪽.

2) 유수양, 『송암 나위소와 수운정 문학』, 『한국고시가문화연구』 18집, 한국고시가문화회, 2006, 237~271쪽.

3) 유수양, 『송암 나위소의 문학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2010, 1~135쪽.

4) 양희철, 『대칭표현을 포함한 연시조들의 유형상: <도산육곡>식과 <방진산군수가>식의 대칭표현을 중심으로』, 『배달말』 64, 배달말학회, 2010a, 87~112쪽.

양희철, 『연시조 종결의 표현 유형』, 『인문과학논집』 41, 청주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010b, 169~200쪽.

스트 중에서, 하나의 텍스트(9수의 텍스트)만을 부분적으로 검토하였다. 일부 주목되는 부분들도 보이지만, <강호구가>를 다른 여러 작품들과 함께 부분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강호구가>의 작품론으로는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이렇게 연구되어온 선행연구들은 <강호구가>의 이해에 많은 도움을 주어 왔다. 그러나 결속, 종결, 구조, 주제 등의 정리에서 미진한 것들이 적지 않아 보인다. 특히 이 작품은 다섯 텍스트로 수용되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 중에서 9수의 텍스트만이 부분적으로 연구되었고, 이 9수의 텍스트를 제외한, 나머지 네 텍스트(전3수의 텍스트, 중3수의 텍스트, 후3수의 텍스트, 전후6수의 텍스트 등)와 관련된 결속, 종결, 구조, 주제 등은 연구된 바가 없다. 이에 <강호구가>의 다섯 텍스트⁵⁾에서 그 결속, 종결, 구조, 주제 등을 다시 한번 검토 정리하면서, 이 작품이 전3수의 텍스트, 중3수의 텍스트, 후3수의 텍스트, 전후6수의 텍스트 등으로 떼어서 수용하기도 하고, 9수의 텍스트로 붙여서 수용하기도 하는, 탈착형(脫着形) 연시조⁶⁾

양희철, 『<방진산군수가>식 대칭표현형 연시조들의 해석』, 『인문과학논집』 42, 청주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011, 105~128쪽.

- 5) 이 다섯 텍스트 외에 제1, 3, 5, 7, 9수의 텍스트와 제3, 5, 7수의 텍스트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특히 전자의 텍스트에서는 ‘호노라’의 반복에 의한 결속과, 제1수 초장과 제9수 초장의 ‘-니’의 대칭에 의한 종결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텍스트는 제3, 5, 7수의 구조를 보여주지 않는다. 그리고 후자의 텍스트에서도 ‘호노라’의 반복에 의한 결속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종결과 구조를 보여주지 않는 문제를 보인다. 이런 점들로 보아, 제1, 3, 5, 7, 9수의 텍스트와 제3, 5, 7수의 텍스트를 설정하는 것은 어렵다.
- 6) 탈착형(脫着形) 연시조는 한 작품의 연시조에서 그 일부를 떼어서 연시조로 수용할 수도 있고, 붙여서 하나의 연시조로 수용할 수 있는 연시조를 말한다. 이 탈착형(脫着形) 연시조는 착탈형(着脫形) 연시조로 부를 수도 있다. 이런 탈착형은 조선조의 문학인 『용비어천가』, 판소리, 연시조 등에서 발견된다.

『용비어천가』에서 그 일부만을 떼어서 <여민락>으로 수용하기도 하고, 붙여서 『용비어천가』로 수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판소리의 경우에는, 어느 한 부분을 분리하여 마당 또는 대목으로 수용하기도 하고, 붙여서 판소리 전편으로 수용하기도 하였다.

의 가능성을 검토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3수의 세 텍스트

이 작품은 우선 3수의 텍스트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전3수(제1~3수)의 텍스트, 중3수(제4~6수)의 텍스트, 후3수(제7~9수)의 텍스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세 텍스트를 이 장에서 차례로 검토 정리하려 한다.

1) 전3수의 텍스트

전3수 텍스트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탈착형의 연시조로는 이 글에서 다루려는 <강호구가>와 다음의 14편이 있다. <도산십이곡>은 <언지>의 텍스트, <언학>의 텍스트, <언지+언학>의 텍스트 등으로 탈착되는 탈착형이다. <강호연군가>(장경세)와 <영언십이장>(신지)은 <도산십이곡>을 모방한 탈착형이다. <고산구곡가>는 제2~5수의 텍스트, 제7~10수의 텍스트, 제1~10수의 텍스트 등으로 탈착되는 탈착형이다. <화암구곡>(유박)과 <황강구곡가>(권섭)는 <고산구곡가>를 모방한 탈착형이다. <술회>(정광천)는 전3수의 텍스트, 후3수의 텍스트, 6수의 텍스트 등으로 탈착되는 탈착형이다. <전원사시가>(신계영)는 <사시>의 텍스트, <제석>의 텍스트, <사시+제석>의 텍스트 등으로 탈착되는 탈착형이다. <오륜가>(박선장)는 5수의 텍스트와 8수의 텍스트로 탈착되는 탈착형이다. <오륜가>(박인로)는 오륜별 5종의 텍스트들, 총론의 텍스트, 전체 텍스트 등으로 탈착되는 탈착형이다. <풍아별곡>(권익륜)은 제1, 2, 7곡의 텍스트, 제1, 3, 8곡의 텍스트, 제1, 4, 9곡의 텍스트, 제1, 5, 10곡의 텍스트, 제1, 6, 11곡의 텍스트, 제1, 7~11곡의 텍스트, 제1~11곡의 텍스트 등으로 탈착되는 탈착형이다. <전가팔곡>(이휘일)은 <원풍>의 텍스트, <사시>의 텍스트, <신오석>의 텍스트, <원풍+사시+신오석>의 텍스트 등으로 탈착되는 탈착형이다. <농가(구장)>(위백규)는 전6수의 텍스트, 후3수의 텍스트, 9수의 텍스트 등으로 탈착되는 탈착형이다. <매화사>(안민영)는 전6수의 텍스트와 8수의 텍스트로 탈착되는 탈착형이다. 이 정리에 소용되는 자료들은, 거리가 필자의 글들이다.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그 서지사항들은 참고문헌에만 제시하였다.

어버이 나흐셔늘 님금이 먹이시니
 나흔 德 먹인 恩을 다 갑곤랴 흐엿더니
 倏然히 七十이 러무니 흘 일 업서 흐노라(제1수)

어와 聖恩이야 罔極홀슨 聖恩이다
 江湖 安老도 分 맞기 일이어든
 흐물며 두 아들 專誠榮養은 쏘 어인가 흐노라(제2수)

煙霞의 겁피 든 病 藥이 效驗 업서
 江湖에 ברי연디 十年 맞기 되어세라
 그러나 이제 다 못 죽음도 귀 聖恩인가 흐노라(제3수)

(1) 결속과 종결

이 전3수 텍스트의 결속은 제1~3수 종장의 반복표현(‘흐노라’)에 의해 이루어진다. 제1~3수의 종장을 보면 ‘흐노라’를 반복한다. 이 반복은 반복표현에 의해 전3수(제1~3수) 텍스트의 내부 결속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전3수 텍스트의 종결은 후미에서 같은 표현을 반복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즉 제2, 3수의 종장을 보면, ‘-인가 흐노라’를 반복한다. 이 반복은 후미에서 반복표현에 의해 종결을 보여주는 종결의 형태이다. 이런 종결의 형태는 이 작품의 후미인 제8, 9수에서도 보인다.

(2) 구조와 주제

전3수 텍스트에서는 논리적 구조만이 발견된다. 이 논리적 구조를 차례로 보자.

제1수는 서사에 해당한다. 초장과 중장인 “어버이 나흐셔늘 님금이 먹이시니 / 나흔 德 먹인 恩을 다 갑곤랴 흐엿더니”에서는 부모와 임금의

은덕을 갚으려 살아온 과거를 노래하고, 종장(“倏然히 七十이 러무니 홀 일 업서 호노라”)에서는 벌써 칠십이 넘어, 노래하는 현재까지 할 일이 없음[閑暇]을 노래한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강호한적을 노래하기에 앞서, 시적 화자 자신의 위치를 포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1수는 서사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서사는 전3수(제1~3수) 텍스트의 서사인 동시에, 뒤에 볼 전후6수(제1~3, 7~9수) 텍스트와 9수(제1~9수) 텍스트의 서사이기도 하다.

제2수는 분외사(分外事, 江湖安老와 專誠榮養)의 성은을 통하여, 안분지족(安分知足)의 강호한적(江湖閑適)을 노래한 본사1에 해당한다. 초장인 “어와 성은(聖恩)이야 망극(罔極)홀스 성은(聖恩)이다”를 보면, 분명히 성은을 노래한다. 그런데 핵심은 성은 자체보다 그 성은이 분외사(分外事)라는 것이다. 중장(“江湖 安老도 分 맞기 일이어든”)을 보면, 강호에서 편안하게 늙는 것만도 ‘분(分) 맞기 일[分外事]’이라고 안분지족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어서 종장에서는 “호물며 두 아들 전성영양(專誠榮養)은 쏘 어인가 호노라”라고 노래하는데, 이 두 아들의 전성영양은 더 더욱 ‘분(分) 맞기 일[分外事]’이라고 안분지족을 보여준다. 이런 사실들로 보면, 제2수에서는 분외사의 성은을 통하여, 안분지족의 강호한적을 노래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는 본사1이다.

제3수는 분외사(分外事, 江湖安老)의 성은을 통하여, 안분지족의 강호한적을 노래한 본사2에 해당한다. 초장(“煙霞의 김피 든 病 藥이 效驗 업서”)과 중장(“江湖에 브리연디 十年 맞기 되어서라”)에서는 강호에서 10년이 넘도록 편안하고 한적하게 살아온 삶을 보여준다. 그리고 종장에서는 초장과 중장에서 노래한 편안한 강호한적에 안분지족을 더하고 있다. 종장은 “그러나 이제 다 못 죽음도 귀 성은(聖恩)인가 호노라”이다. 이 종장에서 ‘이제 다 못 죽음’은 10년 이상 강호의 즐거움에 깊이 빠진

병이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 역시 안분지족을 보여준다. 이렇게 노래한 안분지족의 강호한적을 “그 성은(聖恩)인가 흐노라”로 돌리고 있는데, 이는 제2수에서와 같이, 분외사의 성은을 통한 안분지족의 강호한적을 표현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제3수 역시 분외사(分外事, 江湖安老)의 성은을 통하여 안분지족하는 강호한적을 노래했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제3수의 성은에는 제2수의 강호안로(江湖安老)만 있고, 전성영양(專誠榮養)은 없다. 이를 계산하면, 제3수(본사2)는 제2수(본사1)보다 점강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전3수(제1~3수)의 텍스트는 서사(제1수)와 본사(제2, 3수, 점강적 구조)로 구성된 파격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분외사인 성은의 표현을 통해 보여준 안분지족의 강호한적]의 주제를 노래하였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전3수의 텍스트는 독자적인 결속, 종결, 구조, 주제 등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 독자적인 결속, 종결, 구조, 주제 등은 독립된 작품들과 독립된 텍스트들의 조건이란 점에서, 이 전3수의 텍스트는 독립적 텍스트로도 수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중3수의 텍스트

이 절에서는 중3수 텍스트의 결속, 종결, 구조, 주제 등을 검토 정리하려 한다. 중3수 텍스트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전나귀 밧비 모라 다 점은 날 오신 손님
 보리피 구즌 뵤에 饌物이 아조 업다
 아히아 빅 내어 썩워라 그물 노하 보리라(제4수)

들 붉고 바람 자니 물결이 비단일다
 短艇을 빗기 노하 오락 가락 흥을
 白鷗야 하 즐겨 말고려 世上 알가 흐노라(제5수)

모래 우희 자는 白鷗 閑暇홀사
 江湖 風趣를 네 디닐 저 내 디닐 씨
 夕陽의 半帆歸興은 너도 날만 못 흐리라(제6수)

(1) 결속과 종결

중3수 텍스트의 결속과 종결은 ['-리라'(제4수)—'-노라'(제5수)—'-리라'(제6수)]의 대칭표현에서 확인된다.⁷⁾ 제4, 5, 6수의 종장 끝시어들은 '보리라, 흐노라, 흐리라' 등이다. 이 시어들 중에서 제4, 6수의 두 '-리라'는 제5수의 '-노라'를 대칭축으로 대칭한다. 이 대칭표현은 시종의 대칭표현을 통하여 이 텍스트의 결속과 종결을 보여준다.

(2) 구조와 주제

중3수의 텍스트는 배경시간의 구조, 배경공간의 구조, 논리적 구조 등의 세 구조를 보여준다. 이를 차례로 보자.

① 배경시간의 구조

제4~6수는 은퇴 이후의 시간을 보여주면서, 사시의 배경시간도 보여준다. 이는 제1~3, 7~9수와 다른 점이다. 제4수의 배경시간은 '저녁'이다. 초장인 "전나귀 밧비 모라 다 점은 날 오신 손님"의 '다 저문 날'에서,

7) 양희철(2010a), 앞의 논문, 103쪽.

양희철(2011), 앞의 논문, 116쪽.

제4수의 배경시간이 저녁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5수의 배경시간은 ‘달 밤’이다. 초장인 “들 붉고 브람 자니 물결이 비단일다”에서, 제5수의 배경시간이 ‘달밤’임을 알 수 있다. 제6수의 배경시간은 저녁이다. 중장인 “석양(夕陽)의 반범귀흥(半帆歸興)은 너도 날만 못 흐리라”에서, 제6수의 배경공간이 저녁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시간들로 보아, 제4~6수의 배경시간은 [저녁(제4수)—밤(제5수)—저녁(제6수)]의 대칭적 구조로 정리할 수 있다.

② 배경공간의 구조

제4수의 배경공간은 강호 그 중에서도 물가(집)와 배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은 초장(“전나귀 밧비 모라 다 점은 날 오신 손님”)과 중장(“아히아 비 내어 썩워라 그물 노하 보리라”)을 통하여 추정할 수 있다. 제5수의 배경공간은 강호 그 중에서도 물위의 단정(短艇)이다. 이런 사실은 초장과 중장인 “들 붉고 브람 자니 물결이 비단일다 / 단정(短艇)을 빗기 노하 오락 가락 흐는 흥(興)을”에서 알 수 있다. 제6수의 배경공간은 강호 그 중에서도 돌아오는 물가와 배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은 “모래 우희 자는 백구(白鷗) 한가(閑暇) 홀샤 / 강호(江湖) 풍취(風趣)를 네 디널 씨 내 디널 씨 / 석양(夕陽)의 반범귀흥(半帆歸興)은 너도 날만 못 흐리라”의 ‘모래 위, 강호, 귀흥(歸興)’ 등에서 종합할 수 있다.

이상의 중3수 텍스트의 배경공간은 [물가, 배(제4수)—물위, 단정(제5수)—물가, 배(제6수)]의 대칭적 구조로 정리할 수 있다.

③ 논리적 구조와 주제

제4수에서는 안분지족의 강호한적을 보여준다. 초장과 중장인 “전나귀 밧비 모라 다 점은 날 오신 손님 / 보리피 구즌 뵤에 찬물(饌物)이 아조

업다”에서는 안분지족을 알 수 있고, 찬물을 준비하기 위해 배를 띄우려는 종장(“아히아 비 내어 썩위라 그물 노하 보리라”)에서는 강호한적을 읽을 수 있다.

제5수 역시 안분지족의 강호한적을 보여준다. 초장과 중장인 “들 붉고 브람 자니 물결이 비단일다 / 단정(短艇)을 빗기 노하 오락 가락 흥(興)을”에서는, 달이 밝고 바람이 자므로 물결이 비단과 같은 물에, 단정(短艇, 작은 거룻배)을 비스듬히 놓아 오락가락 하는 흥을 즐기고 있다. 이는 안분지족하는 강호한적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이 제5수의 안분지족의 강호한적은 제4수의 것보다 점층되어 있다. 왜냐하면 제5수의 안분지족의 강호한적은 제4수에서 보인 보리 피 밤에 찬물이 없어, 찬물을 위해 배를 내는 목적성도 제거되고, 흥이 수반된 안분지족의 강호한적이기 때문이다.

제6수 역시 안분지족의 강호한적을 보여준다. 초장과 중장인 “모래 우희 자는 백구(白鷗) 한가(閑暇)홀샤 / 강호(江湖) 풍취(風趣)를 네 디닐 씨 내 디닐 씨”에서는, 강호의 풍경과 정취를 한가한 백구와 함께 하면서, 강호한적을 보여준다. 그리고 중장인 “석양(夕陽)의 반범귀흥(半帆歸興)은 너도 날만 못 흥리라”에서는, 귀흥을 노래하면서, 안분지족도 보여준다.

이 제6수의 안분지족의 강호한적은 제5수의 것보다 점강되어 있다. 왜냐하면 제6수에서 보인 강호풍정을 맞본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는 흥의 강호한적은, 제5수에서 보인 단정을 비스듬히 놓아 오락가락 하는 강호한적에 인간세상사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집으로 돌아오는 흥의 강호한적에는 자연에서 무한정 마음 편하게 놀 수 없어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목적성을 보인다. 이 목적성의 부여는 제4수에서 제5수로 점층되면서 제거된 것을 다시 살린 것이다. 이로 인해 제6수와 제4수의 강호한적은 대칭적이다.

이렇게 볼 때에, 중3수는 점층적 구조와 점강적 구조가 대칭된 대칭적 구조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중3수의 주제는 [강호에서 배를 타고 물에 나아가고, 물위에서 놀고, 돌아오면서 즐기는, 안분지족의 상호한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중3수(제4~6수)의 텍스트는 독자적인 결속, 종결, 구조, 주제 등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 독자적인 결속, 종결, 구조, 주제 등은 독립된 작품들과 독립된 텍스트들의 조건이란 점에서, 이 중3수의 텍스트는 독립적 텍스트로도 수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후3수의 텍스트

이 절에서는 후3수(제7~9수) 텍스트의 결속, 종결, 구조, 주제 등을 검토 정리하려 한다. 후3수 텍스트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ㄹ는 비 빗긴 바람 닳대 멘 더 하나바
네 生涯 언마치라 슈고롭도 수고롤샤
生涯를 爲호미 아니라 漁興계위 흥노라(제7수)

피 燒酒 무우저리 우웁다 어룬 待接
늪은 저 닐은 말이 草草타 흥건마는
두어라 니도 내 分이니 分內事 긴가 흥노라(제8수)

食祿을 긋친 後로 漁釣을 生涯 흥니
험 업슨 아히들은 괴롭다 흥건마는
두어라 江湖閑適이 이 내 分인가 흥노라(제9수)

(1) 결속과 종결

후3수 텍스트의 결속과 종결은 세 종류의 반복표현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첫째로, 제7~9수에서의 반복표현(‘호노라’)이다. 제7~9수의 종장을 보면 ‘호노라’를 반복한다. 이 반복은 반복표현에 의해 후3수(제7~9수)를 하나의 텍스트로 묶는 결속의 기능을 보여준다.

둘째로, 제8, 9수의 종장에서 보이는 ‘호건마는’의 반복표현이다. 제9수의 종장에서는 제8수의 종장에서 사용한 ‘호건마는’을 반복하였다. 이는 후미에서의 반복표현에 의한 종결의 표현이다.

셋째로, 제8, 9수의 종장에서 보이는 “두어라 … -인가 호노라”의 반복표현이다. 제9수의 종장에서는 제8수의 종장에서 사용한 “두어라 … -인가 호노라”를 반복하였다. 이 역시 후미에서의 반복표현에 의한 종결의 표현이다.

(2) 구조와 주제

후3수 텍스트에서는 본사(제7, 8수)와 결사(제9수)로 구성된 파격의 논리적 구조를 보여준다. 이를 차례로 보자.

제7수는 안분지족의 강호한적을 노래한 본사1이다. 초장인 “ᄇᆞᆫ 비 빗긴 바람 낫대 멘 더 하나바”에서는 강호한적을 보여준다. 그리고 중장과 종장인 “네 생애(生涯) 언마치라 슈고롭도 수고롤샤 / 생애(生涯)를 위(爲)호미 아니라 어흥(漁興)계워 호노라”에서는 안분지족을 보여준다. 특히 생애(生涯, 생애=생활)를 위함이 아니기 때문에 어흥겨운 안분지족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제7수는 안분지족의 강호한적을 노래한 본사1로 정리할 수 있다.

제8수 역시 안분지족의 강호한적을 노래한 본사2이다. 초장과 중장인

“피 소주(燒酒) 무우저리 우웁다 어른 대접(待接) / 늙은 저 닐은 말이 초초(草草)타 흐건마는”에서는 강호의 조출함과 한적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종장인 “두어라 니도 내 분이니 분내사(分內事) 나가 흐노라”에서는 안분지족을 잘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이 제8수도 안분지족의 강호한적을 노래한 본사²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제8수의 안분지족의 강호한적은 제7수의 안분지족의 강호한적보다 점강되어 있다. 왜냐하면 제7수의 안분지족의 강호한적에는 어흥(漁興)의 흥이 있지만, 제8수의 안분지족의 강호한적에는 흥이 없다. 이런 점에서, 제7수와 제8수는 점강적 구조이다.

제9수는 결사에 해당한다. 초장(“食祿을 굿친 後로 漁釣을 生涯 흐니”)과 종장(“두어라 江湖閑適이 이 내 분인가 흐노라”)에서는 식록(食祿, 먹고 살기 위한 벼슬)을 그친 이후의 강호한적을 자신의 분(안분지족)으로 생각하는 삶을 요약하고 있다. 특히 이에 포함된 안분지족의 강호한적은 제7, 8수에서 개별적으로 노래한 안분지족의 강호한적은 물론, 제2~8수에서 개별적으로 노래한 안분지족의 강호한적들을 종합할 수 있는 결사이다.

이에 따라 후3수의 텍스트는 본사(본사1, 본사2, 점강적 구조)와 결사로 구성된 과거의 논리적 구조와, [뉘시와 소박한 술과 안주에 안분지족하는 강호한적]의 주제를 보여준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후3수(제7~9수)의 텍스트는 독자적인 결속, 종결, 구조, 주제 등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 독자적인 결속, 종결, 구조, 주제 등은 독립된 작품들과 독립된 텍스트들의 조건이란 점에서, 이 후3수의 텍스트는 독립적 텍스트로도 수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전후6수의 텍스트

이 장에서는 전후6수(제1~3, 7~9수)의 텍스트가 보여주는 결속, 종결, 구조, 주제 등을 검토 정리하고자 한다.

1) 결속과 종결

전후6수(제1~3, 7~9수)의 텍스트가 보여주는 결속과 종결을 보기 위하여, 제1~3, 7~9수를 인용해 보자. 이 텍스트는 전체 텍스트에서 중3수(제4~6수)를 제외한 텍스트이다.

아버이 나흐셔닐 님금이 먹이시니
나흔 德 먹인 恩을 다 갑곤라 흐엏더니
倏然히 七十이 러무니 흘 일 업서 흐노라(제1수)

어와 聖恩이야 罔極홀슨 聖恩이다
江湖 安老도 分 밧기 일이어든
흐물며 두 아들 專誠榮養은 쏘 어인가 흐노라(제2수)

煙霞의 김피 든 病 藥이 效驗 업서
江湖에 브리연디 十年 밧기 되어세라
그러나 이제 다 못 죽음도 그 聖恩인가 흐노라(제3수)

그는 비 밧긴 브람 낫대 멘 더 하나바
네 生涯 언마치라 슈고롭도 슈고롤샤
生涯를 爲호미 아니라 漁興계워 흐노라(제7수)

피 燒酒 무우저리 우웁다 어룬 待接

늪은 저닐은 말이 草草타 흐건마논
두어라 니도 내 분이니 分內事 니가 흐노라(제8수)

食祿을 긋친 後로 漁釣을 生涯 흐니
 험 업슨 아히들은 괴롭다 흐건마논
두어라 江湖閑適이 이 내 분인가 흐노라(제9수)

이 텍스트의 반복표현, 대칭표현, 일탈표현 등을 통하여 결속과 종결을 정리해 보자.

첫째로, ‘흐노라’의 반복표현이다. 이 텍스트를 구성한 제1~3, 7~9수의 종장들을 보면, ‘흐노라’를 반복한다. 이 반복은 제1~3, 7~9수를 하나의 텍스트로 묶는 결속의 기능을 한다.

둘째로, [‘흐노라’—‘인가 흐노라’—‘인가 흐노라’]의 반복표현이다. 이 텍스트의 종장들을 보면, [‘흐노라’—‘인가 흐노라’—‘인가 흐노라’]의 표현을 제1~3수와 제7~9수에서 반복한다. 즉 [‘흐노라’(제1수)—‘인가 흐노라’(제2수)—‘인가 흐노라’(제3수)]와 [‘흐노라’(제7수)—‘인가 흐노라’(제8수)—‘인가 흐노라’(제9수)]로 반복한다. 이 반복 역시 제1~3, 7~9수를 하나의 텍스트로 묶는 결속의 기능을 한다.

셋째로, [분외사(分外事, 제2수의 종장)—대칭축(제3수와 제7의 중간 공간)—분내사(分內事, 제8수의 종장)]의 대조적 대칭표현이다. 제2수의 종장에 나온 ‘분 바그 일’(分外事)과 제8수의 종장에 나온 ‘분내사(分內事)’는 대조적인 대칭표현이다. 이 대칭표현은 전3수의 텍스트와 후3수의 텍스트를 전후6수의 텍스트로 묶는 텍스트간의 결속을 보여준다.

넷째로, [‘니’(제1수)—대칭축(제3수와 제7의 중간 공간)—‘니’(제9수)]의 대칭표현이다. 제1, 9수의 초장 끝시어들은 ‘먹이시니’와 ‘生涯 흐니’

이다. 이 두 어휘의 어미 ‘-니’는 제3수와 제7수의 중간을 대칭축으로 하는 대칭표현이다. 이 대칭표현은 시종의 대칭표현으로 종결을 보여준다.

다섯째로, 제8, 9수 중장에서의 ‘흐건마는’의 반복표현과, 제8, 9수 중장에서의 “두어라 … -인가 흐노라”의 반복표현이다. 이 두 반복표현은 후3수의 텍스트에서 정리했듯이, 후3수 텍스트의 후미에서 같은 것을 반복하여 종결을 보이는 후미 반복형인 동시에, 제1~3, 7~9수의 텍스트에서도 같은 종결의 기능을 수행한다.

2) 구조와 주제

전후6수(제1~3, 7~9수)의 텍스트는 배경시간의 구조, 배경공간의 구조, 논리적 구조 등을 보여준다. 이 세 구조와 주제를 차례로 보자.

(1) 배경시간의 구조

제1수는 은퇴 이전과 이후가 결합된 배경시간을 보여준다. 은퇴 이전의 배경시간은 초장과 중장인 “아버이 나흐셔늘 님금이 먹이시니 / 나흔 德 먹인 恩을 다 갑곤랴 흐엇더니”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은퇴 이후의 배경시간은 종장(“倏然히 七十이 러무니 흘 일 업서 흐노라”)에서 알 수 있다. 특히 종장의 “숙연(倏然)히 칠십(七十)이 러무니”와 행장을 참고⁸⁾하면, 종장의 배경시간이 은퇴 이후임을 알 수 있다.

제2수는 은퇴 이후의 배경시간을 보여준다. 이런 사실은 중장(“江湖 安

8) 박준규는 1997년의 논문 219쪽에서 원문을 각주로 달고, 그 내용을 쉽게 정리한 행장을 보여주었다. 이를 인용한다. “그러나 慶州牧使로 있다가 71세가 되던 임진년(효종 3)에 罷歸될 때는 나이도 70이 넘은지라 ‘내 이미 늙었으니 벼슬을 그만두고 쉬리라’ 하고 고향에 은퇴하여 여생 보낼 것을 결심했다. 송암은 이로부터 선산 밑에 있는 錦水湖 위에 岫雲亭을 짓고 悠悠自適하던 강호 생활을 시작하였다.”

老도 分 맞기 일이어든”)과 종장(“흐물며 두 아들 專誠榮養은 또 어인가
호노라”)에서 쉽게 알 수 있다. 이 중에서도 ‘강호 안로(江湖 安老)’는 강
호에서 편하게 늙음의 의미로 은퇴 이후의 배경시간을 잘 말해준다.

제3수도 은퇴 이후의 배경시간을 보여준다. 이런 사실은 초장(“煙霞의
김피 든 病 藥이 效驗 업서”)과 중장(“江湖에 브리연디 十年 맞기 되어
세라”)에서 알 수 있다. 초장의 ‘연하(煙霞)의 김피 든 병(病)’은 강호를
좋아 하는 병으로 은퇴 이후의 삶을 말해준다. 그리고 중장의 “강호(江
湖)에 브리연디 십년(十年) 맞기 되어세라”는 강호에 은퇴하여 살아온 지
10년이 넘었음을 의미한다. 이런 사실들로 본다면, 제2, 3수는 은퇴의 이
후의 시간을 배경시간으로 하였다고 정리할 수 있다.

제7수는 은퇴 이후의 배경시간을 보여준다. ‘생애(生涯)’에 포함된 ‘생
계’의 의미로, 제7수의 초장(“ᄃ는 비 빗긴 브람 닳대 멘 더 하나바”)과 중
장(“네 生涯 언마치라 슈고름도 슈고롤사”)을 보면, 제7수의 배경시간은
생계를 위한 시간으로 보인다. 그러나 종장인 “생애(生涯, 생애=생계)를
위(爲)호미 아니라 어흥(漁興)계위 호노라”을 염두에 두고, 초장과 중장
을 보면, 은퇴 이후의 생애를 노래하고 있음을 정리할 수 있다. 특히 종장
의 “생애(生涯, 생애=생계)를 위(爲)호미 아니라”는 ‘강호한적을 위함이
므로’의 의미를 우언법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점에서, 제7수의 배경시간은
은퇴 이후로 정리할 수 있다.

제8수도 은퇴 이후의 배경시간을 보여준다. 제8수의 초장과 종장인 “피
소주(燒酒) 무우저리 우웁다 어른 대접(待接) / 늙은 저닐은 말이 초초
(草草)타 흐건마는”만을 보면, 은퇴 이전의 시간인지, 아니면 은퇴 이후를
제유법으로 표현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종장인 “두어라 니도
내 분(分)이니 분내사(分內事) 근가 호노라”와 함께 보면, 이것도 내 분이
란 점에서, 은퇴 이후의 배경시간을 정리할 수 있다. 특히 뒤에 설명하겠

지만, 대칭되어 있는 제2수의 중장인 “江湖(강호) 安老(안로)도 分(분) 밧긔 일이어든”에 포함된 ‘분 밧긔 일’ 곧 ‘분외사(分外事)’가 제8수의 중 장에 나오는 ‘분내사(分內事)’와 대칭되면서, 제8수의 배경시간이 안분(安分)하는 은퇴 이후임을 말해준다.

제9수는 은퇴 이전과 이후가 결합된 배경시간을 보여준다. 초장인 “식 록(食祿)을 긔친 후(後)로 어조(漁釣)을 생애(生涯) ㅎ니”에서, ‘식록(食 祿)’은 은퇴 이전의 배경시간을 보여주고, “식록(食祿)을 긔친 후(後)로 어조(漁釣)을 생애(生涯) ㅎ니”는 은퇴 이후의 배경시간을 보여준다. 그리 고 중장의 “두어라 강호한적(江湖閑適)이 이 내 분(分)인가 ㅎ노라”의 ‘강호한적’ 역시 은퇴 이후를 배경시간으로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제9수 의 배경시간은 은퇴 이전과 이후의 결합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상의 배경시간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순서		배경시간	비고
전3수의 텍스트	제1수	은퇴 이전과 이후	인생 전체
	제2수	은퇴 이후	
	제3수	은퇴 이후	
(대칭축)			
후3수의 텍스트	제7수	은퇴 이후	
	제8수	은퇴 이후	
	제9수	은퇴 이전과 이후	인생 전체

이 표에서 보듯이, 전후6수(제1~3, 7-9수)의 텍스트는, 배경시간에서 제3수와 제7수의 사이를 대칭축으로 대칭하는 대칭적 구조를 보여준다.

(2) 배경공간의 구조

제1수의 배경공간은 과거의 관직공간과 현재의 강호공간(은퇴공간)으

로 추정할 수 있다. 관직의 공간은 시적 화자가 살아온 행장의 관직과 초장(“아버이 나하셔늘 님금이 먹이시니”) 및 중장(“나흔 德 먹인 恩을 다 갑곤랴 ㅎ엿더니”)에서 추정할 수 있으며, 현재의 공간이 아니라 과거의 공간이다. 강호의 공간은 종장(“倏然히 七十이 러무니 홀 일 업서 ㅎ노라”)에서 추정할 수 있으며, 현재의 공간이다.

제2수의 배경공간은 강호(江湖)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은 중장(“江湖 安老도 分 밧기 일이어든”)의 ‘강호(江湖)’에서 알 수 있다.

제3수의 배경공간도 강호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은 중장(“江湖 에 브리연디 十年 밧기 되어세라”)의 ‘강호(江湖)’에서 알 수 있다.

제7수의 배경공간은 강호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은 초장인 “ᄇ는 비 밧긴 ㅼ람 ㄴ대 ㅼ넌 ㄴᄇ 하나바”에서 추정할 수 있다.

제8수의 배경공간도 강호로 추정할 수 있다. 제8수인 “피 소주(燒酒_ 무우저리 우웁다 어른 대접(待接) / 님은 저닐은 말이 초초(草草)타 ㅎ건 마는 / 두어라 니도 내 분(分)이니 분내사(分內事) ㄴ가 ㅎ노라”를 보면, 배경공간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전후가 모두 강호를 배경공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호로 추정할 수 있다.

제9수의 배경공간은 과거의 관직공간과 현재의 강호공간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과거의 관직의 공간은 초장의 전반부인 “식록(食祿)을 ㄴ친 후(後)로”에서 알 수 있고, 현재의 강호의 공간은 초장의 후반부인 “어조(漁釣)을 생애(生涯) ㅎ니”와 종장의 ‘강호한작’에서 알 수 있다.

이상의 배경공간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순서		배경공간	비고
전3수의 텍스트	제1수	관직(과거)과 강호	인생 전체
	제2수	강호	은퇴 이후
	제3수	강호	은퇴 이후
(대칭축)			
후3수의 텍스트	제7수	강호	은퇴 이후
	제8수	강호	은퇴 이후
	제9수	관직(과거)과 강호	인생 전체

이 표에서 보듯이, 전후6수(제1~3, 7~9수)의 텍스트는 그 배경공간에서 제3수와 제7수의 사이를 대칭축으로 대칭하는 대칭적 구조를 보여준다.

(3) 논리적 구조와 주제

‘2’장에서 정리한 제1~3수와 제7~9수의 논리적 구조와 이 항에서 설명하려는 논리적 구조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두 텍스트의 구조			순서	전후6수의 텍스트	
전3수의 텍스트	서사		제1수	기	
	본사1 본사2	점강적 구조	제2수	본사1	승
			제3수		
후3수의 텍스트	본사1 본사2	점강적 구조	제7수	본사2	전
			제8수		
	결사		제9수	결	

이 표에서 보듯이, 전3수의 서사와 본사로 구성된 파격이 구조는 전후6수의 텍스트에서는 ‘기승’이 되고, 후3수의 본사와 결사로 구성된 파격의 구조는 전후6수의 텍스트에서는 ‘전결’이 된다. 특히 제2, 3수와 제7, 8수는 같은 강호한적을 노래한 본사(본사1, 본사2)가 되면서, 소재를 바꾼 ‘승

전'이다. 이런 점에서 전후6수(제1~3, 7~9수)의 텍스트는 전3수 텍스트의 '서본'의 파격 구조와, 후3수 텍스트의 '본결'의 파격 구조가 합친 '기승전결'의 구조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전후6수 텍스트의 주제는 [은퇴 이후에 안분지족하는 강호한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전후6수(제1~3, 7~9수)의 텍스트는 독자적인 결속, 종결, 구조, 주제 등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 독자적인 결속, 종결, 구조, 주제 등은 독립된 작품들과 독립된 텍스트들의 조건이란 점에서, 이 전후6수의 텍스트는 독립적 텍스트로도 수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9수의 텍스트

이 장에서는 <강호구가> 전체인, 9수(제1~9수) 텍스트의 결속, 종결, 구조, 주제 등을 검토 정리하고자 한다.

1) 결속과 종결

전3수(제1~3수)의 텍스트, 중3수(제4~6수)의 텍스트, 후3수(제7~9수)의 텍스트 등을 하나의 텍스트로 묶은 결속과 종결을 보자.

첫째로, [분외사(分外事, 제2수의 중장)—대칭축(제5수)—분내사(分內事, 제8수의 중장)]의 대조적 대칭표현이다. 제2수의 중장에 나온 '분 밖의 일'(分外事)과 제8수의 중장에 나온 '분내사(分內事)'는 대조적인 대칭표현이다. 이 대칭표현은 전3수(제1~3수)의 텍스트, 중3수(제4~6수)의 텍스트, 후3수(제7~9수)의 텍스트 등의 세 텍스트들을 하나의 텍스트로 묶는 결속을 보여준다.

둘째로, ['호노라'—'인가 호노라'—'인가 호노라']가 제1~3수와 제7~9수에서 보이는 대칭표현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호노라'—'인가 호노라'—'인가 호노라']는 제1~3수와 제7~9수에서 반복한다. 그런데 이 반복의 가운데에 제4~6수가 들어온 이 텍스트에서, ['호노라'(제1수)—'인가 호노라'(제2수)—'인가 호노라'(제3수)]와 ['호노라'(제7수)—'인가 호노라'(제8수)—'인가 호노라'(제9수)]는 대칭표현이 된다. 이 대칭표현은 전3수(제1~3수)의 텍스트, 중3수(제4~6수)의 텍스트, 후3수(제7~9수)의 텍스트 등의 세 텍스트들을 9수의 텍스트로 묶는 결속을 보여주며, 동시에 시중의 대칭에 의해, 제1수와 제9수가 각각 시작과 종결임을 보여준다.

셋째로, ['호노라'(제1~3수)—'호노라'(제5수, 대칭축)—'호노라'(제7~9수)]의 대칭표현이다. 제1~3, 5, 7~9수의 종장 끝시어들은 모두가 '호노라'이다. 이 중에서 제1~3수와 제7~9수의 '호노라'는 제5수의 '호노라'를 대칭축으로 한 대칭표현이다. 이 대칭표현은 전3수(제1~3수)의 텍스트, 중3수(제4~6수)의 텍스트, 후3수(제7~9수)의 텍스트 등의 세 텍스트들을 9수의 텍스트로 묶는 결속을 보여주며, 시중의 대칭에 의해, 제1수와 제9수가 각각 시작과 종결이란 사실도 보여준다.

넷째로, 제8, 9수 중장에서의 '호건마논'의 반복표현과, 제8, 9수 중장에서의 "두어라 ... -인가 호노라"의 반복표현이다. 이 두 반복표현은, 후3수의 텍스트와 전후6수의 텍스트에서 정리했듯이, 후미에서 같은 것을 반복하여 종결을 보이는 후미 반복형이다. 이 종결의 기능은 9수의 텍스트에서도 그대로 작용한다.

다섯째로, ['-니'(제1수)—'다'(제5수, 대칭축)—'니'(제9수)]의 대칭표현이다. 제1, 5, 9수의 초장 끝시어들은 '떡이시니, 비단일다, 生涯호니' 등이다. 이 중에서 제1, 9수의 어미 '-니'는 제5수의 어미 '-다'를 대칭축으로 하

는 대칭표현이다. 이 대칭표현은 시종의 대칭표현으로 종결을 보여준다.⁹⁾

2) 구조와 주제

9수의 텍스트도 세 구조와 주제를 보여준다. 이를 차례로 간단하게 보자.

(1) 배경시간의 구조

앞에서 정리한 제1~9수의 배경시간을 표로 종합하여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순서		배경시간	비고
전3수의 텍스트	제1수	은퇴 이전과 이후	인생 전체
	제2수	은퇴 이후	
	제3수	은퇴 이후	
중3수의 텍스트	제4수	은퇴 이후의 어느 저녁	
	제5수	은퇴 이후의 어느 달밤	대칭축
	제6수	은퇴 이후의 어느 저녁	
후3수의 텍스트	제7수	은퇴 이후	
	제8수	은퇴 이후	
	제9수	은퇴 이전과 이후	인생 전체

이 배경시간으로 보면, 배경시간에서 흔히 쓰는 순차적 구조와 이를 이용한 대칭적 구조를 구사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하여 대칭적 구조를 보여주는 특성을 보여준다. 즉, 큰 단위의 시간으로부터 작은 단위의 시간으로 변화하는 변모, 즉 은퇴 이전과 이후의 배경시간인 인생 전체, 은퇴 이후, 사시(저녁, 달밤) 등과 같이 변모를 시키고, 다시, 사시(달밤, 저녁),

9) 셋째, 넷째, 다섯째 등의 대칭표현은 양희철(2010a), 앞의 논문, 104쪽, 양희철(2010b), 앞의 논문, 141~142쪽, 양희철(2011), 앞의 논문, 116쪽 등에서 인용한 것들이다.

은퇴 이후, 은퇴 이전과 이후의 인생 전체 등으로 변모를 시키면서 대칭적 구조를 보인다. 이 대칭적 구조는 특이한 것인데, 이는 전3수의 텍스트, 중3수의 텍스트, 후3수의 텍스트, 전후6수의 텍스트, 9수의 텍스트 등이 가능하게, 이 작품을 탈착형(脫着形) 또는 착탈형(着脫形)으로 쓴 데, 그 이유가 있는 것 같다.

(2) 배경공간의 구조

앞에서 정리한 제1~9수의 배경공간을 표로 종합하여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순서		배경공간	비 고
전3수의 텍스트	제1수	관직(과거)과 강호	인생 전체
	제2수	강호	은퇴 이후
	제3수	강호	은퇴 이후
중3수의 텍스트	제4수	강호(물가, 배)	은퇴 이후
	제5수	강호(물위, 단정)	은퇴 이후(대칭축)
	제6수	강호(물가, 배)	은퇴 이후
후3수의 텍스트	제7수	강호	은퇴 이후
	제8수	강호	은퇴 이후
	제9수	관직(과거)과 강호	인생 전체

이렇게 배경공간은 제5수를 대칭축으로 그 전후가 대칭하는 대칭적 구조를 보여준다.

(3) 논리적 구조와 주제

이 항에서는 9수(제1~9수) 텍스트의 논리적 구조와 주제를 정리하고

자 한다. 이 9수 텍스트의 구조는 앞에서 살핀 전3수의 텍스트, 중3수의 텍스트, 후3수의 텍스트 등에서 정리한 구조를 종합하면서, 조금만 설명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앞에서 정리한 세 텍스트의 구조와, 이 장에서 제시하려는 9수 텍스트의 구조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순서	세 텍스트의 구조			9수 텍스트의 구조		
제1수	전3수의 텍스트	서사		서사		
제2수		본사1	점강적 구조	점강적 구조	대칭적 구조	본사
제3수		본사2				
제4수	중3수의 텍스트	점층적 구조	대칭적 구조	대칭적 구조		
제5수		점강적 구조				
제6수						
제7수	후3수의 텍스트	본사1	점강적 구조	점강적 구조		
제8수		본사2				
제9수		결사		결사		

전3수의 텍스트에서 서사로 쓰인 제1수는 제2, 3수는 물론 제2~8수에 서도 서사이다. 왜냐하면 은퇴 이후의 안분지족의 강호한적을 구체적으로 노래하기에 앞에서 그 실마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전3수의 텍스트는 물론, 9수의 텍스트에서도 서사가 되기 때문이다.

후3수의 텍스트에서 결사로 쓰인 제9수는 제7, 8수는 물론 제2~8수에 서도 결사이다. 왜냐하면 은퇴 이후의 안분지족의 강호한적을 구체적으로 노래한 것들을 하나로 묶었다는 점에서, 후3수의 텍스트는 물론, 9수의 텍스트에서도 결사가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1수와 제9수만이 은퇴 이전과 이후를 모두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제1수와 제9수는 전3수의 서사와 후3수의 결사가 되는 동시에, 9수(제1~9수) 텍스트의 서사와 결사가 된다.

그리고 전3수의 본사인 제2, 3수는 점강적 구조이고, 후3수의 본사인 제7, 8수도 점강적 구조이다. 이는 두 점강적 구조가 제5수, 또는 중3수(제4~6수)의 텍스트를 대칭축으로 대칭하는 구조이다. 즉 [점강적 구조(제2, 3수)–저녁의 출항(제4수)—물위의 단정(대칭축, 제5수)–저녁의 귀항(제4수)—점강적 구조(제7, 8수)]의 대칭적 구조이다.

이렇게 9수의 텍스트는, 서사(제1수), 본사(제2~8수, 대칭적 구조), 결사(제9수) 등으로 이루어진 3단 구조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9수 텍스트의 주제는, 전후6수 텍스트의 주제와 같이, [은퇴 이후에 안분지족하는 상호한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9수의 텍스트는 독자적인 결속, 종결, 구조, 주제 등을 보여준다. 이런 사실은 이 작품이 전3수의 텍스트, 중3수의 텍스트, 후3수의 텍스트, 전후6수의 텍스트로 떼어서 수용할 수도 있고, 9수의 텍스트로 붙여서 수용할 수도 있게, 탈착형(脫着形)의 연시조로 지어졌음을 말해준다.¹⁰⁾

10) 지금까지 논의한 다섯 텍스트에 대하여, 작가가 의도한 텍스트들을 연구자가 발견한 것인가, 아니면 작가가 의도하지 않은 텍스트들을 연구자가 발명한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다음의 네 측면에서도 작가가 의도한 텍스트들로 판단한다.

첫째는 문체의 수렴의 측면이다. 다섯 텍스트에서 발견된 문체 장치들(결속 표현, 종결 표현, 구조)은 우연히 그리고 여기저기서 산견(散見)되는 하나 또는 두 개가 아니고, 상당히 많은 것들이 수렴(收斂, convergence)된 것들이다. 이렇게 여러 문체들이 하나의 기능으로 수렴될 때에, 이 문체들은 작가가 의도적으로 사용한 문체 장치들로 정리된다(M. Riffaterre, "Criteria for Style Analysis", *Word* XV, New York: the Linguistic Circle of New York, 1959, pp.172~174.).

둘째는 다섯 텍스트를 가능하게 한 대칭표현과 대칭적 구조의 측면이다. 대다수의 한국시가 연구자들은 결속, 종결, 구조 등에서 대칭표현과 대칭적 구조를 거의 인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오륜가>, <도산십이곡>, <고산구곡가>, <오우가>, <매화사> 등등의 연시조 30여 편에서 결속, 종결, 구조 등에 사용된 대칭표현들과 대칭적 구조들이 발견되었다는 점을 참고하면, <강호구가>의 다섯 텍스트가 작가가 의도한 것임을 좀더 이해할 수 있다.

셋째는 탈착형 연시조에 나타난 텍스트들과 수용자의 심적 상황의 부합이란 측면

5. 결론

지금까지 <강호구가>의 다섯 텍스트에서 결속, 종결, 구조, 주제 등을 검토 정리하고, 이를 통하여 탈착형 연시조의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여 결론을 대신하려 한다.

먼저 전3수(제1~3수)의 텍스트에서 검토 정리한 결속, 종결, 구조, 주제 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1) 제1, 2, 3수의 종장에서 반복하는 ‘호노라’는 전3수(제1~3수) 텍스트의 내부 결속을 보여준다.
- 2) 제2, 3수의 종장에서 반복하는 ‘-인가 호노라’는 전3수 텍스트의 후미에서 반복표현에 의한 종결을 보여준다.
- 3) 전3수(제1~3수) 텍스트의 논리적 구조는 서사(제1수)와 분사(분사1:제2수, 분사2:제3수, 점강적 구조)로 구성된 파격의 구조이다.
- 4) 전3수(제1~3수) 텍스트의 주제는 [분외사인 성은의 표현을 통해 보여준 안분지족의 강호한적]이다.

중3수(제4~6수)의 텍스트에서 검토 정리한 결속, 종결, 구조, 주제 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1) 중3수의 텍스트에서, [-리라(‘보리라’, 제4수)—‘노라’(‘호노라’, 제5수)—‘리라’(‘호리라’, 제6수)]의 대칭표현은 시종의 대칭표현을 통하여 이 텍스트의 결속과 종결을 보여준다.
- 2) 중3수의 텍스트에서, 배경시간은 [저녁(제4수)—밤(제5수)—저녁(제

이다. <강호구가>의 다섯 텍스트는 물론, 탈착형 연시조에 나타난 텍스트들은 각각 그 수용시에 수용자의 심적 상황에 부합하는 텍스트의 길이, 내용, 주제 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존재가 인정된다.

넷째는 탈착형은 조선조 문학(『용비어천가』, 판소리)은 물론 상당히 중요하고 적지 않은 연시조 15편에서 발견된다는 측면이다. 이는 서론의 각주에서 설명하였다.

이런 네 측면들로 보아, <강호구가>의 다섯 텍스트는 작가가 의도한 것으로 판단한다.

6수]의 대칭적 구조이고, 배경공간은 [물가, 배(제4수)—물위, 단정(제5수)—물가, 배(제6수)]의 대칭적 구조이며, 논리적 구조는 점층적 구조와 점강적 구조가 대칭된 대칭적 구조이다.

- 3) 중3수 텍스트의 주제는 [강호에서 배를 타고 물에 나아가고, 물위에서 놀고, 돌아오면서 즐기는, 안분지족의 강호한적]이다.

후3수(제7~9수)의 텍스트에서 검토 정리한 결속, 종결, 구조, 주제 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1) 제7~9수에서 반복하는 ‘호노라’는 후3수 텍스트의 결속을 보여준다.
- 2) 제8, 9수에서 반복하는 ‘호건마늘’과 “두어라 ... -인가 호노라”는 후3수 텍스트의 후미에서 같은 표현의 반복을 통한 종결을 보여준다.
- 3) 후3수의 텍스트에서, 논리적 구조는 본사(본사1, 본사2)와 결사로 구성된 파격의 구조이다.
- 4) 후3수 텍스트의 주제는 [낚시와 소박한 술과 안주에 안분지족하는 강호한적]이다.

전후6수의 텍스트에서 검토 정리한 결속, 종결, 구조, 주제 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1) 제1~3, 7~9수의 전후6수를 하나의 텍스트로 결속하는 표현은 세 종류이다. 하나는 6수(제1~3, 7~9수)의 중장들에서 반복하는 ‘호노라’의 반복표현이고, 다른 하나는 [‘호노라’(제1수)—‘인가 호노라’(제2수)—‘인가 호노라’(제3수)와 [‘호노라’(제7수)—‘인가 호노라’(제8수)—‘인가 호노라’(제9수)]의 반복표현이며, 또 다른 하나는 [분외사(分外事, 제2수의 중장)—대칭축(제3수와 제7의 중간 공간)—분내사(分內事, 제8수의 중장)]의 대조적 대칭표현이다.
- 2) 전후6수의 텍스트에서 발견되는 종결의 표현은 두 종류이다. 하나는 시종의 대칭표현에 의해 종결을 보여주는, [‘니’(‘먹이시니’, 제1수)

—대칭축(제3수와 제7의 중간 공간)—‘-니’(‘生涯 ㅎ니’, 제9수)의 대칭표현이고, 다른 하나는 텍스트의 후미에서 같은 표현의 반복을 통하여 종결을 보여주는 것으로, 제8, 9수에서 반복하는 ‘ㅎ건마는’과 “두어라 ... -인가 ㅎ노라”의 반복표현이다.

- 3) 배경시간은 [은퇴 이전과 이후(제1수)—은퇴 이후(제2, 3수)—대칭축—은퇴 이후(제7, 8수)—은퇴 이전과 이후(제9수)]의 대칭적 구조이고, 배경공간은 [관직과 강호(제1수)—강호(제2, 3수)—대칭축—강호(제7, 8수)—관직과 강호(제9수)]의 대칭적 구조이며, 논리적 구조는 [기(제1수)—승(제2, 3수)—전(제7, 8수)—결(제9수)]의 구조이다.
- 4) 전후6수 텍스트의 주제는 [은퇴 이후에 안분지족하는 강호한적]이다. 9수의 텍스트에서 검토 정리한 결속, 종결, 구조, 주제 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1) [분외사(分外事, 제2수의 중장)—대칭축(제5수)—분내사(分內事, 제8수의 중장)]의 대조적 대칭표현은 전3수의 텍스트, 중3수의 텍스트, 후3수의 텍스트 등의 세 텍스트들(제1~9수)을 9수의 텍스트로 묶는 결속을 보여준다.
- 2) [‘ㅎ노라’(제1~3수)—‘ㅎ노라’(제5수, 대칭축)—‘ㅎ노라’(제7~9수)]의 대칭표현, [‘ㅎ노라’(제1수)—‘-인가 ㅎ노라’(제2수)—‘-인가 ㅎ노라’(제3수)]와 [‘ㅎ노라’(제7수)—‘-인가 ㅎ노라’(제8수)—‘-인가 ㅎ노라’(제9수)]의 대칭표현, [‘-니’(‘떡이시니’, 제1수)—‘-다’(‘비단 일다’, 제5수, 대칭축)—‘-니’(‘生涯 ㅎ니’, 제9수)의 대칭표현 등은, 전3수의 텍스트, 중3수의 텍스트, 후3수의 텍스트 등의 세 텍스트들(제1~9수)을 9수의 텍스트로 묶는 결속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시종의 대칭표현에 의해 제1수와 제9수가 각각 시작과 종결임을 보여준다.

- 3) 제8, 9수에서 반복하는 ‘호건마는’과 “두어라 … -인가 호노라”는 후미에서 같은 것을 반복하여 종결을 보여준다.
- 4) 배경시간은 [은퇴 이전과 이후(제1수)–은퇴 이후(제2, 3수)–은퇴 이후의 어느 저녁(제4수)–은퇴 이후의 어느 달밤(대칭축, 제5수)–은퇴 이후의 어느 저녁(제6수)–은퇴 이후(제7, 8수)–은퇴 이전과 이후(제9수)]의 대칭적 구조이고, 배경공간은 [관직과 강호(제1수)–강호(제2, 3수)–강호(물가, 배, 제4수)–강호(물위, 단정, 대칭축, 제5수)–강호(물가, 배, 제6수)–강호(제7, 8수)–관직과 강호(제9수)]의 대칭적 구조이며, 논리적 구조는 [서사(제1수)–본사(제2~8수, 대칭적 구조)–결사(제9수)]의 구조이다. 논리적 구조의 본사가 보여주는 대칭적 구조는 [점강적 구조(제2, 3수)–대칭적 구조(제4~6수)–점강적 구조(제7, 8수)]이다.
- 5) 9수 텍스트의 주제는 전후6수의 텍스트에서와 같은 [은퇴 이후에 안분지족하는 강호한적]이다.

이상과 같이, 다섯 텍스트들은 각각 독자적인 결속, 종결, 구조, 주제 등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독자적인 결속, 종결, 구조, 주제 등은 독립된 작품들과 독립된 텍스트들의 조건이다. 이런 사실들은 이 작품이 전3수의 텍스트, 중3수의 텍스트, 후3수의 텍스트, 전후6수의 텍스트 등의 네 텍스트로 떼어서 수용할 수도 있고, 9수의 텍스트로 붙여서 수용할 수도 있게, 탈착형(脫着形) 또는 착탈형(着脫形)의 연시조로 지어졌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 글에서는 <강호구가>의 탈착형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이 작품의 시가사적 의의는 거의 다루지 못했다. 이 문제는 다른 탈착형 연시조들의 연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추후에 보완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박준규, 「송암의 수운정제영과 『강호구가』」, 『어문논총』 10·11,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회, 1989, 177~204쪽.
- 박준규, 「송암의 수운정제영과 『강호구가』」, 국어국문학회 편, 『고시조연구』, 태학사, 1997, 209~248쪽.
- 양희철, 「대칭표현을 포함한 연시조들의 유형성: <도산육곡>식과 <방진산군수가>식의 대칭표현을 중심으로」, 『배달말』 64, 배달말학회, 2010a, 87~112쪽.
- 양희철, 「연시조 종결의 표현 유형」, 『인문과학논집』 41, 청주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010b, 169~200쪽.
- 양희철, 「<고산구곡가>식 대칭표현형 연시조들의 유형성과 개별성」, 『어문연구』 64, 어문연구학회, 2010, 169~200쪽.
- 양희철, 「연시조 『매화사』의 세 구조 연구」, 『한국언어문학』 74, 한국언어문학회, 2010, 317~342쪽.
- 양희철, 「<방진산군수가>식 대칭표현형 연시조들의 해석」, 『인문과학논집』 42, 청주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011, 105~128쪽.
- 양희철, 「<고산구곡가>의 구조 연구」, 『어문연구』 68, 어문연구학회, 2011, 283~310쪽.
- 양희철, 「『화암구곡』의 구조 연구」, 『어문연구』 156,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2, 125~149쪽.
- 양희철, 「『매화사』의 문학적/음악적 구조와 주제」, 『인문과학논집』 46, 청주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013, 55~103쪽.
- 양희철, 「<전원사시가>의 구조 연구」, 『어문연구』 77, 어문연구학회, 2013, 119~251쪽.
- 양희철, 「<전가팔곡>의 구조와 주제」, 『한국고전연구』 28, 한국고전연구학회, 2013, 125~156쪽.
- 양희철, 「<농가(구장)>의 구조 연구」, 『인문과학논집』 47, 청주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013, 85~114쪽.
- 양희철, 「<오류가>의 구조적 표현과 구조: 약장가사, 주세붕, 박선장 등의 작품을 중심으로」, 『청대학술논집』 2014년도 특집호 8권, 청주대학교 학술연구소,

2014, 5~27쪽.

- 양희철, 「<풍아별곡>의 구조 연구」, 『인문과학논집』 50, 청주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015, 135~164쪽.
- 양희철, 「노계의 연시조 『오륜가』의 구조 연구」, 『한어문교육』 32,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15, 83~107쪽.
- 양희철, 「<고산구곡가>의 주제 연구」, 『어문연구』 85, 어문연구학회, 2015, 161~185쪽.
- 양희철, 「『고산구곡가』의 용의정심 연구」, 『어문연구』 108,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5, 191~218쪽.
- 양희철, 「고산의 연시조 <우오가>의 결속과 구조」, 『인문과학논집』 51, 청주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015, 131~156쪽.
- 양희철, 「『오우가』의 처신의 수사와 두 텍스트의 의미」, 『한국언어문학』 96, 한국언어문학회, 2016, 123~152쪽.
- 유수양, 「송암 나위소와 수운정 문학」, 『한국고시가문화연구』 18, 한국고시가문화학회, 2006, 237~271쪽.
- 유수양, 「송암 나위소의 문학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2010, 1~135쪽.
- Riffaterre M, “Criteria for Style Analysis”, *Word* XV, New York: the Linguistic Circle of New York, 1959, pp.154~174.

ABSTRACT

A study on five text in <Ganghoguga>

—a probability of desorption type through unity, closure, structure, and subject
in each text—

Yang, Hee-cheol

This study looked upon unity, closure, structure, and subject, in five text of <Ganghoguga> written by Na, Wi-so(1582~1666).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

1. We understood unity made by repetitive expression, closure made by repetitive expression in last part, logical structure of introduction and body, in the first text(the 1~3 Sijo) of <Ganghoguga>.

2. We understood unity and closure made by symmetrical expression, and symmetrical structure of background time, background space and logic, in the second text(the 4~6 Sijo) of <Ganghoguga>.

3. We understood unity made by repetitive expression, closure made by repetitive expression in last part, and logical structure of body and conclusion, in the third text(the 7~9 Sijo) of <Ganghoguga>.

4. We understood unity made by symmetrical expression, closure made by symmetrical expression and repetitive expression in last part, and symmetrical structure of background time, background space, logical structure of introduction, development, turn, and conclusion, in the fourth text(the 1~3, 7~9 Sijo) of <Ganghoguga>.

5. We understood unity made by repetitive expression and symmetrical expression, closure made by symmetrical expression and repetitive expression in last part, symmetrical structure of background time, background space, and logical structure of introduction, body, and conclusion, in the fifth text(the 1~9 Sijo) of <Ganghoguga>.

According to the result above, We understood a probability of

desorption type in 〈Ganghoguga〉, because unity, closure, structure, and subject are found in five text each.

Key Words closure, desorption type, structure, subject, symmetrical expression, symmetrical structure, unity

논문투고일 : 2016.04.15

심사완료일 : 2016.04.30

게재확정일 : 2016.05.08